

# 세상 아픔 이해해야 고통서 벗어난다

## 불교로 읽는 古典

###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김진  
울산대 철학과 교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88~1860)는 불교를 서양철학에 체계적으로 접목시킨 최초의 철학자다. 그는 삶을 '고통'이라고 봄으로써 비판주의 혹은 염세주의 사상가로 널리 알려졌으나, 불교의 세계인식이 고통에서 시작하여 결국에는 그 해방을 지향하는 것처럼, 그 역시 의지의 절대부정을 통하여 고통의 근본 소멸을 추구했던 만인구원의 사상이었다. 삶의 세계가 고통이라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연민, 동정, 동고(同苦)의 감정을 바탕으로 고통의 절대해체를 기획했던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 처음부터 두드러졌던 것은 아니다. 그의 '고유사상'은 1813년의 저술 <중족근거울의 네 뿌리>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 사상의 근본은 칸트의 비판철학이다. 그는 지성의 순수개념인 12개의 범주들을 인과성으로 환원하고자 했다. 결국 생성, 인식, 존재, 행위가 인과성 안에 그 중족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즉 어떤 것도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사실들은 비록 유연적이기는 하지만 불교의 연기설(緣起說)과 같은 내용이다. 이처럼 쇼펜하우어의 초기사상은 상호의존적 창발이라는 연기설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814년에 쇼펜하우어는 바이마르에서 헤르더의 제자인 동양학자 프리드리히 마이어로부터 <우파니샤드>를 소개받았다. 베단타와 힌두교 사상은 그에게 이미 낯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고유사상이 유럽이 아닌 미지의 땅에서 이미 확립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가 보기에 신약성서의 역사적 원천은 이스라엘이 아닌 아시아였고, 그리스도교의 뿌리 역시 유대주의가 아닌 브라만주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쇼펜하우어는 인도아말로 '가장 고대적이고 원시적인 지혜의 땅'임에 틀림없고, 그리스도교는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 이후 지중해 연안으로 퍼졌던 불교의 한 지류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쇼펜하우어의 불교 예찬은 유럽문명의 기원을 고대 이스라엘이 아닌 인도에서 찾으려는 바그너의 반유대주의, 그리고 유럽정신의 기원을 그리스도 대신 디오니소스로 규정한 니체의 권력의지 사상으로 전개되었다.

쇼펜하우어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초판, 1818)>는 아직 불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초판 서문에서 자신의 '고유사상'이 칸트, 플라톤, 우파니샤드 사상이라고 그 세 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베다', '우파니샤드', '산스크리트 문헌', '고대 인도의 지혜' 등을 언급하지만, 불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쇼펜하우어는 이때 이미 스스로를 '불교주의자'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유럽에서는 불교 소개자가 극소수였고 단편적인 것들뿐이었다. 따라서 쇼펜하우어 역시 칸트처럼 여행이나 동양 소개서 정도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학술지 역시 <아시아 연구>의 초창기 발행

### 쇼펜하우어의 고유사상 연기·사성제 유럽적 해석 인식은 직관·지성의 결과 "세상은 곧 나의 표상이다"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동행 실천... 고통 해결 가능

본 정도를 활용하는데 그쳤을 것이다.

1844년에 출간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2판은 원고량이 배가되어 두 권으로 발행되었고, 1859년의 3판은 2판보다 136쪽이 더 증보되었다. 이 책들에서는 불교에 대한 해박한 이해가 개진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그 사이에 불교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갖추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유럽에서의 불교는 제2판(1844년)이 간행될 무렵에 활발하게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쇼펜하우어가 참조했다고 밝히고 있는 우파의 <불교 교의(1829)>, 뵘르누프의 <인도불교사 입문(1844)> 등이 출간되었으며, 그 이후 스펜스 하디의 <불교입문(1853)>, 쥘리 바르텔레미 생틸레르의 <붓다와 그의 종교(1858)>가 간행되었으며, 막스 뮐러, 헤르만 올덴베르크, 에드윈 아널드, 리즈 데이비드 등의 불교 저술들이 쏟아져 나왔다.

쇼펜하우어는 이 시기에 <중족근거울> 2판(1847), <자연에서의 의지> 2판(1854),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3판(1859)을 줄지어 출간하는데, 여기에서 그의 고유사상은 기존의 칸트, 플라톤, 우파니샤드 이외에도 불교적 지평으로 확대되었다.

1847년에 출간된 <중족근거울의 네 뿌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88~1860)는 불교를 서양철학에 체계적으로 접목시킨 최초의 철학자로 평가받는다. 특히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불교를 탐구했던 그의 전작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리> 2판에서 쇼펜하우어는 세계창조자이자 인격적 통치자인 신에 대한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유럽의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 대비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갖는' 불교가 관념론적, 금욕적, 무신론적 종교라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삭 야곱 슈미트의 중앙아시아의 고대 교육(1824) 및 영지주의와 불교의 관계(1827)에 대한 두 저서와 우파의 번역서(1833), 그리고 선교사 귀츨라프(Carl F. Gutzlaff)의 <중국제국사>와 홍콩 총독 데이비스의 <중국인(1799)> 등의 문헌을 소개하고 있지만, 불교의 주요 교리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1854년에 출간된 <자연에서의 의지(1836)> 제2판, '중국학'을 다루는 곳에서 불교 이해에 도움을 받았던 자료 총목 26권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그가 아마도 이 시기에 불교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뵘르누프, 스펜스 하디의 불교서 이외에, 연유를 알 수 없지만 2판 발행 시점보다 늦은 두 권의 서지목록이 들어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칼 프리드리히 쾨펜의 저서 <붓다의 종교와 그 성립(1857)>이다. 어쨌든 쇼펜하우어가 불교 저술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시기에 그가 불교를 그의 고유사상의 한 축으로 확장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비구 나나지바코는 <쇼펜하우어와 불교(1970)>에서 '사성제'를 중심으로 <중족근거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수고 유작> 제1권(초기 원고), <자연에서의 의지> 등의 저술에서 쇼펜하우어가 불교를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보여주었고 했다. 나나지바코는 쇼펜하우어가 주로 소승불교의 지식에 한정되어 있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불교의 초기 문헌들과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헬무트 글라세나프도 <독일사상가의 인도 이해(1960)>에서 쇼펜하우어와 불교의 핵심사상이 전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쇼펜하우어의 주장이 붓다 혹은 소승불교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칸트, 플라톤, 우파니샤드, 불교를 융합한 것이고, 특히 후기에 불교의 지평이 점점 더 확대되면서 동고와 의지부정을 보완하고 자비를 중시함으로써 대승불교의 이념까지 반영했던 것이다.

그의 사유실험의 결과는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다. 모든 인식은 세계 실재가 주

체의 직관과 지성에게 드러난 것, 즉 표상일 뿐이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따라서 의지는 알 수 없는 사물자체가 아니라, 모든 현상의 가장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본질이다. "세계는 의지 그 자체이다." 쇼펜하우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 즉 칸트가 사물자체로 여겼던 것을 의지로 규정하고, 그러한 세계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표상이라고 보면서, 의지가 특정한 개체 안에서 현상으로 드러나는 원리를 개체화와 중족근거울로 설명하고자 했다.

현상의 세계 배후에 존재하는 의지 자체는 개체화의 원리에 의하여 여러 형태의 개체로 분화하고, 그 각각의 존재는 삶의 맹목적 경향성을 가진 의지의 절대공정을 통하여 최대 확장을 도모한다. 세계(世界)는 본질적으로 의지공정의 산물이다. 그런데 니체는 의지의 절대공정에 집착하여 권력의지, 곧 자아실현을 목표로 하는 초인(위버멘쉬)사상으로 포장하였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니체는 타자의 고통을 강화하는 잘못된 길을 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의 부정은 곧 개체화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마야의 베일, 즉 우주적 환상의 장막을 걷어내는 것을 뜻한다. 인간은 '나'라는 개체성의 환상에서 벗어날 경우에만 그 고통스러운 실존적 조건을 순간적으로 벗어나는 미적 관조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조의 기쁨은 개인의 완전한 무화(無化)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시적인 진정제'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고통으로부터의 전적인 해방은 오직 삶의 의지 자체의 완전한 소멸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 세계의 고통과 재난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이른바 '동고(同苦, Mitleid)'의 감정을 가진 사람은 오직 자신의 의지를 부정하는 것만이 고통의 근본 치유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개체화의 원리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제 삶을 긍정하거나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향락을 거부하고, 마음속에 더 이상의 분노나 욕망의 불씨가 타오르지 않게 할 수 있다. 삶의 의지를 부정하는 사람은 자기희생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종교적 실천으로 나아간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붓다와 예수의 자기희생을 의지부정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대승불교의 보살사상과 일치한다. 이 사상의 원형은 베단타인데, 우파니샤드에서 "너는 그것이다"라고 기술한 것, 즉 아트만과 브라만의 일치(梵我一如) 상태를 뜻한다. 의지철학은 베단타와 불교의 조화를 구축하고 있다. 이로써 쇼펜하우어는 기독교, 힌두교, 불교 등의 종교에서 사랑, 연민, 동

정, 정적주의, 금욕주의, 신성성 등과 같은 수행적 지향성과 모든 성인들의 실천을 자신의 철학, 즉 고유사상으로 이문화했다고 자부하였다.

쇼펜하우어의 고유사상은 불교 연기설과 사성제에 대한 유럽적 해석이기도 하다. 무아(무아)와 윤회(카르마)의 모호한 관계는 유럽인들의 불교 이해를 어렵게 한 근본 요인이었다. 붓다의 다르마설은 1918년 독일계 러시아인 오토 로젠베르크 등에 의하여 비로소 그 진의가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붓다의 사상은 실천 주체의 부정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무아설과, 자아의 존재 없이 수행적 실천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윤회설 사이에서, 모호하고 심지어는 모순적으로 보이기조차한 아프리아를 함축하고 있었다.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를 신적 세계원리에 의한 구원론이 아닌, 타자의 고통을 동고(同苦)의 차원에서 접근한 동정, 연민, 희생, 자비의 윤리로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의 의지부정은 실제의 절멸로서의 무아 또는 허무로서의 열반이 아니고, 단순한 무의욕의 작용이다.

그러므로 쇼펜하우어의 고유사상에서는 가아와 진아, 속제와 진제의 구분이 무의미하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의지의 서로 다른 표상들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인식 주체로서의 영혼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만이 윤회한다고 보았다. 어떤 것이 죽더라도 의지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다. 의지는 새로운 탄생과 더불어 새로운 지성과 새로운 존재를 갖는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윤회가 아닌 재생이다. 그리하여 쇼펜하우어는 이 새로운 탄생을 불멸의 의지 자체에 도달하려는 갈망의 표현으로 읽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존재의 의지공정은 고통을 초래한다. 이처럼 여러 형태의 탄생을 통하여 정제된 삶은 오직 의지의 절대부정의 방식에서만 자기완성에 도달하는 것이다.

개별의지의 절대공정과 절대부정 사이의 간극조차도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의지의 절대부정'은 붓다와 예수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신들의 희생을 기쁨으로 인류구제를 목표로함으로써 사실상 '의지 자체의 절대공정'(보존)과 다르지 않다.

그와 반대로 니체가 강조한 '의지의 절대공정'은 바그너와 히틀러의 사례에서 보듯이 반유대주의와 홀로코스트라는 악마화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사실상 '의지 자체의 절대부정'(절멸)과 다르지 않다.

쇼펜하우어의 고유사상은 동고의 감정에 기초한 의지의 절대부정 사상으로 칸트와 플라톤, 베단타와 불교의 핵심 사상들을 아우르려는 거대한 기획이었으며, 그의 사유실험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b>발로해(두한족열양말)</b>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b>자나깨나</b> 중단전 차크라 열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感 체험
	<b>자사라따</b>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b>호락호락 팬티</b>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b>보디스킨</b>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http://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두리안이 딱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망고, 체리, 아보카도 등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http://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 지월 법사의 사주학 강의

사주상담의 전문가 시대를 선언!  
지월법사의 옥문관 사주학 강좌

신강신약론과 격국용신론 신살론의 뿌리를 뒤엎은 옥문관사주학!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사주학, 격국용신론

10년, 20년을 해도 아리송한 사주학을 붙들고 지낼 것인가?

조상타령 귀신타령 빙의타령하는 사주학이 사주학인가?

사주를 보고 운명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주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주학입니다.

교재 "운명그물음에 답하다." 사주학과 운명 상담학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1번출구  
010-2395-0472 지월 최명진